

물태는 결혼은 새장과 같다고 했다. 밖에 있는 새들은 쓸데없이 안으로 들어와서 하고 안의 새들은 밖으로만 나가려 한다는 것. 톨스토이는 결혼에서 중요한 것은 스무번이고 백번이고 깊이 생각해볼 일이라고 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을 때 죽음에 임하듯, 결혼도 다른 노리가 없을 때나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젊은 이들이 벌써 이런 結婚觀을 통달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晩婚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 통계청이 발표한 9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初婚연령이 남자 28.6세 여자 25.5세로 늦어지고 있다. 初婚연령이 이토록 높아진 것은 아마도 有史以來 처음으로 것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朝鮮朝때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었는데 다 전통관례에 따라 모두 早婚했다. 1920년대 들어 初婚통계가 보이는 데 1925년의 초혼연령은 남자 20.2세 여자 16.7세였으며 30년엔 남자 21.2세 여자 17세로 약간 높아졌다 ◆ 40년에도 남자 21.7세 여자 17.5세로 약간 높아지는 듯 마는 듯했으나 6.25를 겪은

50년에는 초혼연령이 부쩍 뛰어들어 남자 25.4세 여자 21.5세였다. 55년에 이보다 약간 내려갔다가 60년에 다시 50년수준을 회복하더니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70년에 남자 27.2세 여자 23.3세, 80년에 남자 27.3세 여자 24.1세로 올라가더니 90년에 남자는 28세, 여자는 25세가 넘어버렸다. 晩婚현상은 대체로 세계적 추세다 ◆ 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美인구통계국에 따르면 작년의 초혼연령이 남자 26.1세 여자 23.9세로 과거 1백년간의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는 것. 미국의 초혼연령은 20세기 들어 내내 낮아지다가 70년부터 높아지고 있다. 우리의 초혼연령이 높아지는 것은 교육기회가 많아지고 특히 적령기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져서 때문이다. 의학적으로는 임신 자녀 태를 고령, 남자 25.27세, 여자 23.25세가 결혼 적령기다. 특히 여성의 早晩婚은 産母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알맞게 이분가정은 부부는 물론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적절한 것이 좋듯 결혼도 適期가 가장 좋지 않을까.